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12시
금요일예배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1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9월 29일 (제709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 럼

우리가 살 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 국토의 2/3가 산지인 나라,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나라, 천여 번의 외침을 받은 나라, 63년 전 동족 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엄청나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요,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른 나라이며, 원조 국가이고, IT산업의 선두주자로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보며 멘토로 삼는 나라가 되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부지런함, 뜨거운 교육열, 살아보겠다는 의지와 열정... 물론 이것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이고 지대한 요인이 있다. 바로 우리의 자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창고를 열고 넘치도록 쏟아 부으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자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던 많은 무리가 배부를 수 있었던 것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자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 우리 앞에 닥친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뛰어넘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삼상 2:6~7). 그 분은 창조주요, 만물과 만인을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와 민족이 되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초일류국가가 될 것이고,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자!

뜨겁던 여름도 세월의 힘은 어쩔 수 없는지, 이제 아침이면 제법 찬바람이 느껴진다.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느 것도 없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정연한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죽으면 다 그만인 게야. 믿긴 뭘 믿어? 나 밖에 믿을 건 없어!' 하며 호기롭게 떠드는 인간 군상들의 정변조차도 도도한 역사의 물결기 앞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 결과 일족족들의 위기로 치달던 남북 대결구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물론 가변적인 북한 정권의 태도가 여전히 걸림돌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여신 역사의 문을 닫을 자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이제 저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지하에서 숨죽이고 있는 북한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는 크리스천만의 책무가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책무라 생각한다.

오는 화요일 10월 1일 저녁 8시, 우리는 88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 159개국의 젊은이들이 모여 한반도의 평화를 회려했던 그 장소, 메인스타디움 바로 옆에 위치한 잠실실내체육관(전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6, 7번 출구)에서 '국가와 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마치 대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작은 쓰레기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제 아무리 아우성치며 저항해보아도 소용없는 일이다. 2년 전 일본 땅에 들이닥쳤던 쓰나미를 기억할 것이다. 그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그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던가? 평화롭다, 안일하다 하니 그 시간이 영원할 줄 아는가? 이 땅에도 전쟁이 그치고 평화롭게 된 시절이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근 5, 60년 정도이다. 여전히 전쟁의 위기는 상존해있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그리고 원자력 통제문제 등으로 우리의 평화는 언제 위기에 처할지 알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어떤 시간표 아래, 어떤 역사적 지점 위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지구촌의 안녕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지난 4월 부천체육관 집회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히 도려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저 북한 땅에 더 이상 호전적인 집단이 자리 잡아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동족 간에 총부리를 겨누는 이 모순의 역사를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남북이 상생의 경쟁 속에 성장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급격한 흡수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라 이 나라 이 민족은 오늘의 번영과 평화를 구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이 나라를 피로써 지켜온 결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보우하시라 우리나라 만세'라고 노래한 까닭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작은 땅, 세계열강에 둘러싸인 이 지극히 작은 동방의 나라는 어떤 운명에 처할지 알 수 없다.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라도 이 나라 백성이라면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 고민하며

족의 앞날을 위한 성회'를 개최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의 평화와 안녕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집회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이 나라는 어떤 개인의 나라가 아니요,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아름답고 소중한 땅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땅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기도해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남북이 갈린 것도 모자라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이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때, 정말 뜻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대결구도를 끝내고 힘을 합하여 협력의 구도로 이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10월 1일 화요일 저녁 8시 잠실실내체육관,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뜻을 모으는 이 자리에 모두가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Henry

henry8829@naver.com



이초석 목사 잠실실내체육관 집회

일시: 10월 1일(화) 저녁 8시 장소: 잠실실내체육관(2호선 종합운동장역 6,7번 출구) 문의: 02-533-9191, 1600-0688

구독신청 : 1600-0688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1:16~17)



집착과 집념은 다르다

율법과 복음은 다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은 복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끌고와 예수님 앞에 내팽개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8:7). 이 말을 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양심에 가책을 느껴 슬금슬금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8:11)고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롬3:10). 그러나 그 율법은 죄를 용서할 능력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 완전한 해방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간음한 여인도 율법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로 인하여는 복음 안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범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줄 우리는 아노라”(딤후1:8).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과속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집착은 버릴 것이요 집념은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즉 가난한 자에게 부유하게 된다는 소식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된다는 소식입니다(눅4:18). 또한 복음은 정죄하는 대신 일흔 번에 일곱 번까지도 용서한다는 소식이며(마18:22), 주 예수를 영접하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소식이고(롬8:2),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요1:12).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마5:17)고 하신 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에서 끝나지만, 예수님은 깨달은 죄를 용서하고 사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다르듯이 집착과

집념도 다릅니다. 집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에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잡을 집(執), 붙을 착(着)으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호리병 속에 망고를 넣어두면 원숭이는 백발백중 잡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는 호리병 속에 손을 쏙 넣어서 망고를 잡습니다. 그런데 망고를 잡고 손을 빼려고 하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호리병이란 것이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안쪽은 넓기 때문입니다. 망고를 놔야 손을 뺄 수 있건만 원숭이는 끝까지 망고를 못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고 맙니다. 망고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다.
여러분,
여러
분



은
지금 무
엇을 쥐고
있습니까? 어
떤 것에 집착하고 있
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지
금 버리지 않으면 당신 역시 망고를 쥔
원숭이 짝이 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이 권력입니까? 해롯은 유대인의 왕이 낳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두 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까(마2:1~18). 권력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사울 역시 권력에 집착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삼상18:10~24:22). 그 결과가 어땠는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정의 수립부터 솔로몬 왕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던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던 시기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역사적 과오기에 아브넬 살해 사건, 아마사 살해 사건, 아도니아 반란사건 등을 일으켰습니다. 그 역시 솔로몬 시대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왕상2:34).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이 돈입니까? 돈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부자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심히 근심하고 슬픈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돈에 집착하여 영생의 길을 저버린 것입니다(막10:17~22).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이 혹 쾌락이나 세속적인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이며, 나실인이었던 삼손, 그는 이

방 여인인 들릴라에게 집착하여 하나님과의 비밀을 누설하고 맙니다.

결국 그는
머리 털
이 밀려

여호와와의 신이 떠나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삿16:18~22).

저는 욕기를 읽으면서 욕은 지나친 자만심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집착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욕4). 그 집착을 버리고 회개했을 때 비로소 그의 고난이 끝나고 갑절의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역시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치세의 확장으로 인해 자만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단4:30). 그러자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심판의 음성을 높이십니다. 이에 다니엘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만 그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에게 쫓겨나서 짐승처럼 일곱 해를 지내게 됩니다(단4:19~37).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삼성은 지난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신경영 선언’에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고 했습니다. 과거 국내 제일이라는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르노 자동차를 포기했기에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선경그룹 역시 의류산업에

집착하지 않았기에 거대한 그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짙 웰치는 ‘리더란 자고로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며, “경영자는 관리자가 아니다. 관리자는 이미 과거에 속한 것이니 열린 마음으로 기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저는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과거의 잘못된 영광을 그리워하며 과거에 집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작금에 일어난 전(前) 대통령 사건도 돈에 집착한 대가를 똑똑히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집착을 버리고 집념을 가져야 합니다. 집념(執念)은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정신을 쏟는 것’으로, 아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집착에서 집념으로 전환한 사람을 꼽자면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는 것에 집착하여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자 집착했던 것을 다 버리고 복음전파에 집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 성전을 짓는 일에 집착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집념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집착한 것을 놓으십시오. 집착은 고집의 아버지입니다. 고집 부려서 좋을 게 없습니다. 이삭이 우물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집착하는 세상의 것을 놓고 하늘에 소망을 바라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세와 내세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골3:2).

합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일류국가를 꿈꿔라

20대 중반에 싱가포르를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50대 중반에 다시 그 곳을 찾았는데, 너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크게 세 가지가 나를 놀라게 했는데, 첫째는 30년 전에 농사짓고 가내수공업이었던 옛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 없고, 고층 빌딩과 멋진 쇼핑센터로 가득한 3차 산업대국으로 변화된 것이었다. 이미 농업과 가내수공업은 없어진지 오래됐고 서비스업, 금융업, 유통업 물류 단지 등으로 바뀌어 있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국어를 중국어에서 영어로 바꾼 것이다. 30년 전에는 어디가나 중국어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젠 아예 모국어자체를 영어로 바꿔 학교나 사회나 가정에서 모두가 영어를 쓰고 있었다. 심지어 아시아의 비영어권 국가의 젊은이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그곳에 와있었다. 비영어권 나라가 영어 수출국이 된 것이다. 세 번째는 30년 전에는 중국이나 대만과 비슷한 모습이었어서 여기저기 이상으로 가득하고, 향을 피워 음습한 냄새에 젖은 작은 시골 도시 같던 나라가 이제 그런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여기저기 크고 작은 교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라로 변해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어느 날 숙소 근처를 걷는데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가보니 300여명쯤 들어가는 성당에 성도들이 꽉 차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는 방언을 하고, 어떤 이는 통로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것이 마치 우리교회의 기도시간에 내가 들어와 있나 착각할 정도였다.

‘내가 걸어온 일류국가의 길(From Third to First)’의 저자인 싱가포르 리관유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적고 있다. “내가 이 책을 자세히 써 내려가는 이유는 후손들에게 오늘의 싱가포르가 자연의 섭리나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고통과 위기를 온 국민이 함께 이겨내어 지금의 싱가포르를 이루어왔고, 향후 또 다른 30년도 더 나은 내적성장을 위한 도전과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다. ‘공짜는 쥐뿔에나 달려있다’고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생각 또한 한가지다. 일제 36년과 6·25는 5,000년 동안 변화하지 않고 고착화버린 삶의 틀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첩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상숭배가 기반이 되어 있는 삶을 깨뜨리고 복음이 기반이 된 삶으로 변화시키시려고. 그리고 복음이 기반이 된 지난 100여년의 삶은 지난 5,000년 동안보다 수천 배의 발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했고,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맛보게 했다. 지금은 어디가나 교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어디가나 크리스천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일류국가로 가는 길에 최대의 에너지요, 밑거름이 마련된 것이다. 이것이 계속 발전될 때 마치알아 지구촌 위에 이 나라가 우뚝 설 것이 분명하다. 누군가 일류국가를 꿈꾸며 기도해야 한다. 누군가 일류교회, 가정, 개인을 꿈꾸며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시대 목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3.1운동당시 민족운동 대표 33인 중 하나였던 남궁억 선생은 암울한 역사에 한 줄기 빛으로 살아 갔다. 그는 독립운동가였고, 교육자였으며, 언론인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 그가 지은 찬송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그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남궁억 선생은 무궁화 심기운동을 펼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무궁화 심기운동으로 독립의지를 고취시켰고, 민족의 존재이유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이 일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다가 결국 순국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불살라 곁에 가루를 만들어 무궁화나무에 거름으로 써다오.” 무궁화를 영어로 하면 ‘Rose of Sharon’이다. ‘샤론(Sharon)’은 성(聖)스럽고 선택받은 곳이란 뜻이고, ‘샤론의 장미(Rose of Sharon)’는 성스럽고 선택받은 곳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의미한다. 곧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에 태초부터 선택한 성스러운 나라다. 오늘날의 대한의 축복은 어쩌면 이미 계획된 것인지 모른다. 무궁화는 별로 화려하지 않다. 진땀물도 많이 낀다. 그러나 그 생명력은 대단하다. 우리나라 역시 슬한 외침과 내란, 심지어 동족간의 전쟁까지 겪었다. 진땀물 세례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무궁화는 죽지 않았다. 무궁화는 꾸준히 꽃을 피우고, 지금도 여전히 꽃을 피우고 있다. 지금은 진땀물이 끼지 않는 무궁화가 생겨났다. 품종개량이 된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고난과 수치는 없다. 은은한 무궁화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활짝 필 것이고, 전 세계까지 물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샤론의 장미이고, 하나님이 보우하사 만만세이기 때문이다.

예수중심편집실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 삼아

우리나라는 1953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한 세계 10대 최빈국에 속했습니다. 60년이 지난 2012년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2,708달러로 339배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6월에 선진국 20~50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20~50 클럽’이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 이상을 달성한 국가들의 모임인데, 국제사회에서 1인당 소득 2만 달러는 선진국 문턱으로 진입하는 소득 기준으로, 인구 5,000만 명은 인구 강국과 소국을 나누는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선진강국의 대열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면에서도 우리의 노래와 드라마가 세계로 수출되고, 한식은 세계인의 입맛을 바꾸면서 한류열풍을 일

으키고 있으며, 스포츠 분야도 세계의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는 달리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화되는 불황, 치솟는 청년실업, 빈부격차의 심화, 성직 타락과 무절제한 생활 풍도, 우익과 좌익의 극렬한 사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 골 깊은 국내 정치 갈등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심각한 현재의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국가와 민족, 권력과 문화 등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 합니다. 둘째, 수신제가치

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정신으로 공의로운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자신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성 있는 이념으로 무장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행동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정과 국가와 세계를 공의롭게 경영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권력의 유지, 창출에만 골몰하지 말고, 국군포로 및 납치된 국민의 귀환, 국가 유공자의 추직 발굴 및 포상, 북한 및 해외 동포의 한국 국민대우 등과 같은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야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크게 변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융성하기를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이관섭

kwansup1029@hotmail.com



귀를 기울이세요

18세기 중반 미국이 건국되던 때에 헌법 제정을 위한 의회가 필라델피아에서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지만, 서로가 분열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해산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훗날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킨(Benjamin Franklin)의 위원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탄생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과 같이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동의하여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가 끝난 뒤 모두의 마음이 열려 미합중국 헌법을 수월하게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을 이어 지금도 미국 국회의사당의 중앙 돔 안쪽에는 국회의원들을 위한 개인기도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인공으로 어수선한 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먼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원동력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신재식 전도사

blessedmc@naver.com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여 년 전, 미국 장로 교에서 파송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땅에...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사람,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외국인 선교사의 눈에 비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은 어둠이 가득하였고, 황폐한 산하에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제대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지만 계속된 주변 국가들의 침략과 부패한 조정의 횡포로 내부의 위기가 끊이지 않았습다. 미신과 우상 숭배를 하며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도 술과 노름에 빠진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와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처럼 은총의 나라로 변화되었고, 축복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애국가의 노랫말처럼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하는 선교사들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한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유사 이래 최고의 전

성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러한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이룬 나라와 민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4월, 무지막지한 북한의 핵발과 공갈로 정국이 분열되고 전쟁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을 때, 예루살렘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은 부친살내체육관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의 평화는 우연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살 길은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하신 것은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의 결단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암5:6).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시각의 차이, 결과의 차이

성경은 우리 인생길에 복과 화가 함께 있다고 말씀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이요, 또 무엇이 화인가?

‘복(福)’자를 살펴보면 ‘불(示)’자와 ‘참(福)’자가 합하여 이루어졌다. 곧 복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볼 줄 아는 것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아름답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참다운 복이란 것이다. 반면 ‘재앙(禍)’자는 ‘불(示)’에 ‘허물(咎)’자가 합하여 이루어졌다. 즉 나의 허물과 상대의 허물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재앙 중에 재앙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향방을 가른다’는 옛 성현의 가르침이 실로 오묘하지 않은가! 이처럼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이다. 고착된 시각, 집착, 고집, 이런 닫힌 시각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열린 마음, 문제를 친구 삼는 적극적인 자세, 이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만이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다.

근래 ‘지금 당면한 현실이 대단히 암울하다’고들 한다. 사실,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이 결코 낙관적이지는 않다. 남과 북은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는 북한정권의 가변성이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국제정세까지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우리와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들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신중 시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계층 간 빈부격차, 세대 간 이념대립, 지역 이기주의에 뿌리를 둔 지역 간 갈등의 골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깊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에 우리 시장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지속이나 출구전략으로의 선회나에 따라 자본시장이 출렁이고, 추가, 환율이 춤을 추며 국내경제가 일회일비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잊지 말자. 이를 대하는 우리의 시각 말이 다르다. 우리에게는 늘 함께 해온 친구나 다름없다. 세계열강에 둘러싸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작은 나라에 이는 어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할 수 있다. 잘 살아보자는 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해 국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 그 결과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닌가?

이제 시각을 바꾸자. 지금 당신의 눈엔 무엇이 보이는가?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민족의 불쏘시개

지금 우리나라는 분열과 갈등 속에 사회가 매우 경직된 분위기이다. 내란음모의 충격에다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일정은 진행이 순탄치 못한 상태이며, 이산가족 상봉 연기로 남북관계는 다시 살얼음판을 걷게 되었다.

이처럼 위기초점해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성경 속 미가서와 닮았다. 미가 선지자는 당시 사회상에 대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죄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서 같이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찰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미7:1-4)라고 표현한다. 갈수록 의인은 사라지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며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는 지금 우리 사회와 같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교훈할까?

미가의 경우, 무엇보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성벽, 즉 우리 각 개인의 신앙과 예배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다 (미7:7-20). 그렇다. 세상이 어둡고 사회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어떠한 스타 정치인이나 제도변화를 통해 나라가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살 길은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의 결단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미가의 교훈처럼 국가의 명운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며, 이를 위해 진실하게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불쏘시개 같은 한사람을 통해 일어서는 것이다. 이는 예수께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아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기꺼이 용기를 내어 행동했을 때, 민족을 구하고 자신의 민족을 몰살시키려던 하만을 오히려 처형시키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겨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도 눈물로 탄식하므로 민족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가 위기 앞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쳤던 수많은 순교자들과 피로써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다. 국가를 일으키기 위해 한손엔 칼을, 한손엔는 쟁기를 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전들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와 충성으로 헌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창대히 빛날 것이다.

하인명

renming@daum.net

이 작은 나라를 위해

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이제는 도리어 구호물품을 전 세계에 보내는 나라,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실, 별 볼일 없는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지리적으로 우세하지도 않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엔 사람이 있지요. 이 작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구하고 버티고 이겨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나라에 불만이 있었다면, 그 불만, 당신의 자리에서 조금씩 개선시켜나 가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지 않다면, 이 나라가 자랑스러워지도록 당신이 빛내주면 어떨까요? 만약 이 나라에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면, 이 나라가 태어나고 싶은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꼭 이순신 장군이나 유관순 열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해 쏟는 많은 시간 중 아주 조금이면 됩니다. 작게는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고, 투표를 하고,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더 훌륭해질 겁니다. 당신과 나로 인해!

신은혜

dopal0203@naver.com